

순천 보선 야권연대 성공 미지수

민주 지역 의원들 “무공천 부정적... 선거 지원 안할 것” 반응 냉랭

거론 후보들 인지도 낮아 승리 장담 못해

차기 총선·대선 등 정치 지형 영향 클 듯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 성공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곳의 야권연대 성공 여부는 차기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 등 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의 인지도 등이 낮은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력 지원과 순천 민심의 폭발 등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무공천’을 통한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단일 후보가 선출된다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실제로 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2일 순חק규 대표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무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과 함께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야권연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면 민주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의원은 “밥상을 차려줄 수는 있지만 밥까지 먹여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야권연대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성공은 광주·전남지역의 민주당 지지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기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지역구를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력을 투입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 한나라당 후보와의 접점이 예상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경남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에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순천에서의 야권연대 성공 여부는 야권 단일 후보의 경쟁력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에 따라, 야권 단일 후보 선출 과정에서 흥행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고 순천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후보를 제시하지 않는 한 야권연대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순천 민심이 야권연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가 현실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순천 민심은 무소속 후보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상급식 행보 드라이브 건 순חק규

민주당 순חק규 대표가 3일 지방 순회 일정을 잠시 접고 무상급식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손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급식관련 서울 구청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EU FTA 처리 진통 예고

與 “민생문제 시급” 野 “한상을 국조를”

3월 임시국회 개최

3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9일 동안의 일정으로 본격 가동된 가운데 물가 폭등과 전세대란 등 민생문제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비준, 한상을 전 국제청장 및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에 핫 이슈로 부상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중에 최소한 민생 관련 법안만큼은 당력을 모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최된 것은 민생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끼리 13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해 더

많은 법을 생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실정 부각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권에) 상당히 흡족한 방향으로 수사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한 전 청장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이번 회기 내 추진 과제로 정한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회의 하루 전인 9일까지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FTA 비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회기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여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남북관계발전특위장 박주선 의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관계발전특위 등 5개 국회 특위의 위원장이 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여당과 특위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주고 받았다”며 “민주당 몫인 남북관계발전특위는 박주선(사진) 의원, 연금제도개선 특위는 이석현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몫인 민생특위는 김영



선 의원, 정치개혁특위는 이경재 의원, 공학·발전소·핵화전원 가스 주변 대책특위는 이근현 의원으로 각각 결

정됐다.

이 5개 국회 특위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화순 후보 내기로

진보신당 전남도당

진보신당 전남도당(준)은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순천과 화순지역에 독자후보를 내는 등 적극적으론 대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도당(준)은 최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4·27 순천, 화순 보궐선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독자후보를 발굴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의 지역독점을 극복하고 진보진영의 당선을 현실화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27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 민주당 후보 공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형제군수’ ‘부부군수’로 불리는 전직 군수들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맞붙을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데 애를 먹는 등 인물난에 허덕이면서 후보 공천에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형준 전 군수와 임호경 전 군수, 구충근 전남도립대 총장, 홍이식 전남도의원, 배동기 전 화순부 군수, 이윤모 전 전남도공무원교육원장 등 5~6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까지 후보를 낙점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3일

孫, 호남 첫 공천 화순군수 관심

무소속 前 군수들 이길 후보 찾기 부담

국회의원·언론사 대표 만나 여론 수렴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몇몇 있으나 일부는 흡결이 있다”며 “중앙당이 참신하고 파괴력 있는 후보를 몰색 중이나 마땅한 후보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형제군수’와 ‘부부군수’ 집안 간의 해묵은 갈등과 소송 등으로 지역이 극심한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 여론 등을 감

안해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형준·임호경 전 군수와 맞붙어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화순군수 공천은 순חק규 대표 체제 이후 호남에서 첫 공천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한 대목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야권연대차원에서 민주노동당에 양보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황에서 화순군수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지역에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순חק규 대표는 오는 4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언론사 사장단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인 등을 만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화순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손 대표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이 화순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SSM 피해 중소기업인 최대 984만원 보상”

김재균 ‘유통업 특별법’ 발의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인을 보상하는 내용의 ‘서비스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매년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상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소요 연간 1조1101억원을 대기업 매출 1% 이내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유통산업발전부담금과 복권사업 수익금,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 중소기업들은 업체당 최소 615만원에서 984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김의원은 4일 운암3동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지역구 12개 동(洞)을 순회하며 지역밀착형 의정보고회를 연다. 김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역민을 위해 인터넷 방송을 통한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청소 및 건축물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

청소 영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소독 영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 대진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웨이커스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스포츠 게임 천국	소셜 커머스 '티켓몬키' 외 다수	
웹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아쿠아 랜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웨이커스 070 · 7581 · 7766
010 · 3549 · 9358